

대학에  
바란다

#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네 과제\*

황영남 | 서울 세종고등학교 교장



## 1.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학령인구 감소가 급속히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당장 초·중·고에 대한 교육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교원수급 불균형,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산어촌 학교의 공동화, 구도심과 신도심의 편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가는 2016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이후에는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부족한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부실대학은 더욱 부실해 질 것이다. 이미 신입생 정원의 70%도 못 채우는 대학이 30여 개에 이른다. 그래서 교과부는 작년 말엔 23개 대학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액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대학 간 인수·합병이나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 규모와 속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졸자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의 구인난도 문제다. 대졸자 취업률이 4년제 40%, 2년제 65%에 불과하고 그나마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들은 대졸자 한명을 쓸 만한 사원으로 만들려면 19.5개월의 시간과 6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시 현장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회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비싸지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만 살찌울 뿐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깊어만 간다는 비판을 대학은 새겨들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대학 교육을 마쳐도 취업과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학 존립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학 교육의 성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된다면 이런 위기는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다운 대학이 되고, 대학생다운 대학생을 길러낼 수 있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계에 이른 대학들은 과감하게 학과 통폐합, 조직 재편, 다른 대학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에 기대거나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머지않아 대학 구성원이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개혁해야 한다. 정부도 개혁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

다. 그리고 부실한 사학재단인 경우에는 해산과 자진퇴출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법률적 뒷받침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2.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재산이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어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대학을 다닐 필요는 없지만 현재처럼 80% 수준의 대학 진학률이 과다한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의 질적 보장 없이 자동적으로 졸업하는 비율이 85%가 넘는 현실은 잘못이다. 대학에 들어가지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의 학사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말해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57개국 중 51위였다는 사실도 우리 대학교육의 위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일반화된 교육을 대동소이하게 실행하고 있다. KAIST와 과기대 등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오히려 중앙과 지방 가릴것 없이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은 비슷한 학과에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유행을 쫓아서 교육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시대별 유행에 민감해서 실용학문은 융성하지만 기초학문은 고사위기에 처한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신입생 선발이 한줄서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현상이 야기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단방약 처방과 같은 대응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특정분야에서 'Global Top 10' 혹은 'Top 100'에 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이 지닌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세계적 경쟁력은 아직도 많이 뒤떨어진다. 대학 스스로 획기적인 개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특정분야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현실로 되어야 한다. 어느 한 학과가 되어도 좋고 특수분야 학문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세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찾게 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 특정한 목표를 정해 총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느냐 여부가 세계적 경쟁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학간 연합과 통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미래 발전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비전을 세워 매진한다면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럴만한 역량과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교육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미래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사이버 대학과 강좌 운영,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 러닝을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대학들이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고교와 대학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각종 교육개혁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교육계의 소명이 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비록 고교와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전혀 다르지만 고교에서 양성하는 인재상과 대학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통교육을 하는 고교교육을 선도해야 하고, 고교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위적인 명제가 흔들릴 때가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며 사회의 요구가 없거나 적어지고 있는 분야를 고집하여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고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교육으로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고교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인 것이다.

고교 대학간 연계하는 유형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당사자간 협약을 통해 특정한 분야에서 고교교육에 대학이 직접 조언하거나 참여할 수도 있고,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대학과 고교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부응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연합체를 통한 고교와 대학의 연계도 가능하다. 대입정책

과 선발방안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와 진학지도교사협의회와의 협력도 좋은 연계 방안이고, 지역 내에서의 고교 대학간 협력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런 방안들 중 이미 적극적인 연계가 이뤄지고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긴밀한 연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 대학이 글로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은 3가지 측면에서 실행되고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학생들의 의식과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인생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의식의 세계화'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마음을 열도록 하는 글로벌 교육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하고 잘 살아야 발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에게 편견없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소양과 이웃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시민정신을 대학에서 길러줘야 한다. 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토대가 바로 의식의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학 교육은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세계화'는 학교 현장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해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대학에 도입하고 우리의 교육을 세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균등한 교육 수준으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세계화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정받는 대학들도 있지만 좀더 특성화 되고 집중하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을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력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생의 세계화'는 학생들의 꿈을 세계화 시키는 것이다. 즉,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꿈을 실현하는 인생의 글로벌 교육을 말한다. 학생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인생을 설계할 때 그 무대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소양과 능력들이 많다.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력, 다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 의지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육하고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계와 교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기회를 통한 경험이 세계로 도전하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세계와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인생의 세계화' 교육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소개

황영남 | 서울 세종고등학교 교장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교육개혁협의회 민간위원, 교과부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 학부모정책 자문위원,

학교자율화정책 자문위원, 강남에듀드림 운영위원장, 동국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및 서울 세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